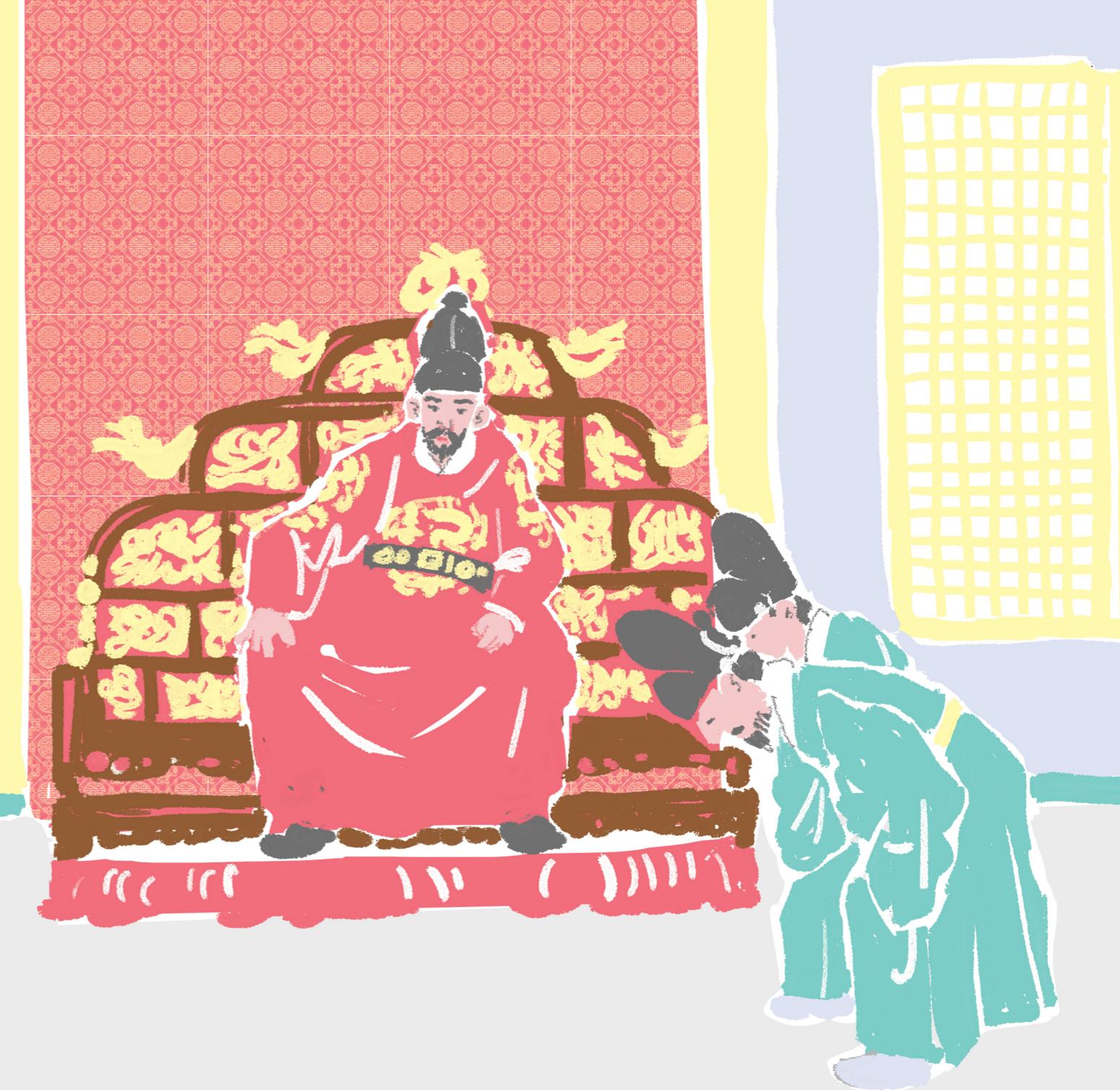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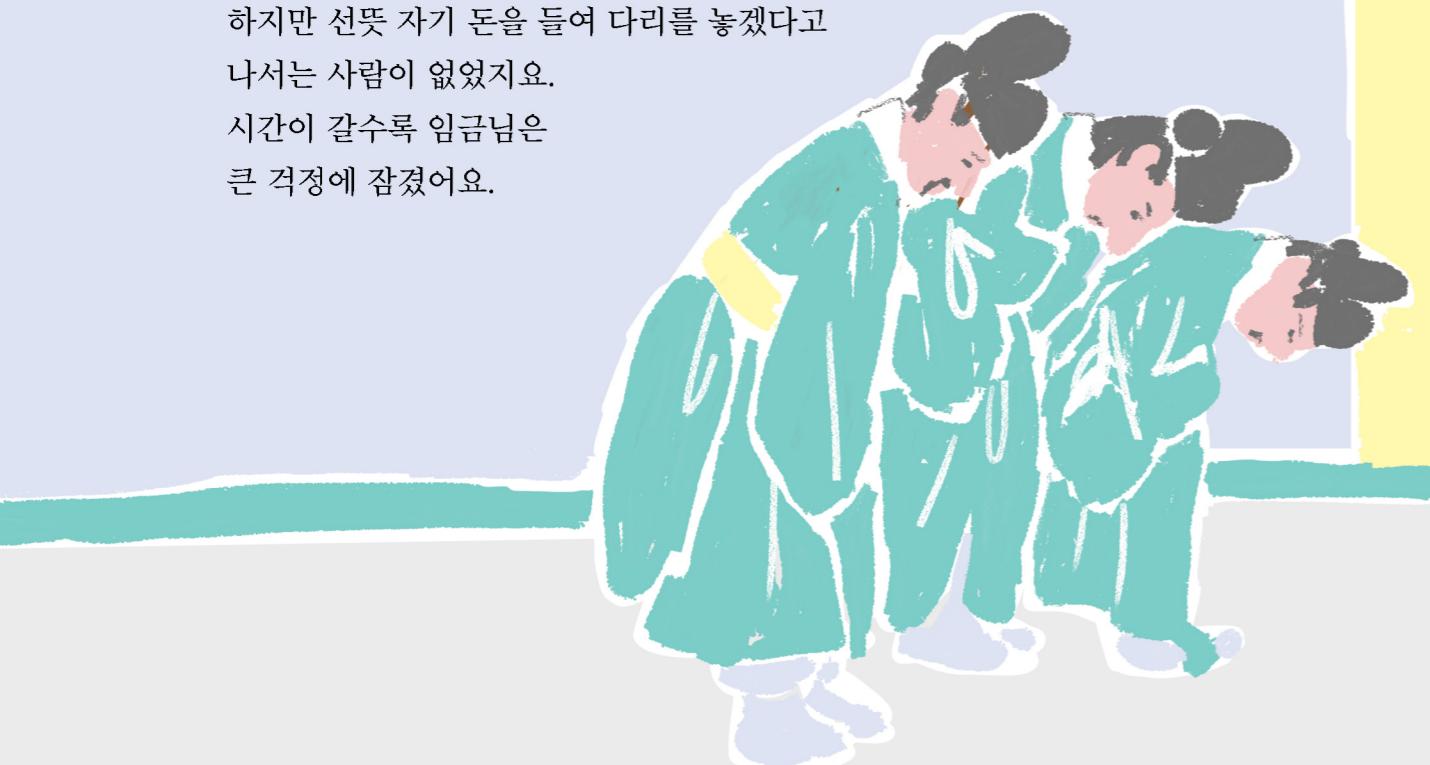


옛날 옛날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일이에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생겨 중국에서 손님을 맞이해야 했어요.

“전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려면 달래강을 건너야 하는데,  
나라 살림이 어려워 다리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온 나라에 이 사실을 알려  
다리를 놓아 줄 사람을 찾았어요.  
하지만 선뜻 자기 돈을 들여 다리를 놓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시간이 갈수록 임금님은  
큰 걱정에 잠겼어요.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드는 일에  
망설이지 않고 나선 분이 바로  
조한준 할아버지였어요.

비록 자신은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되더라도 나랏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다리가 거의 완성될 무렵이었어요.  
조한준 할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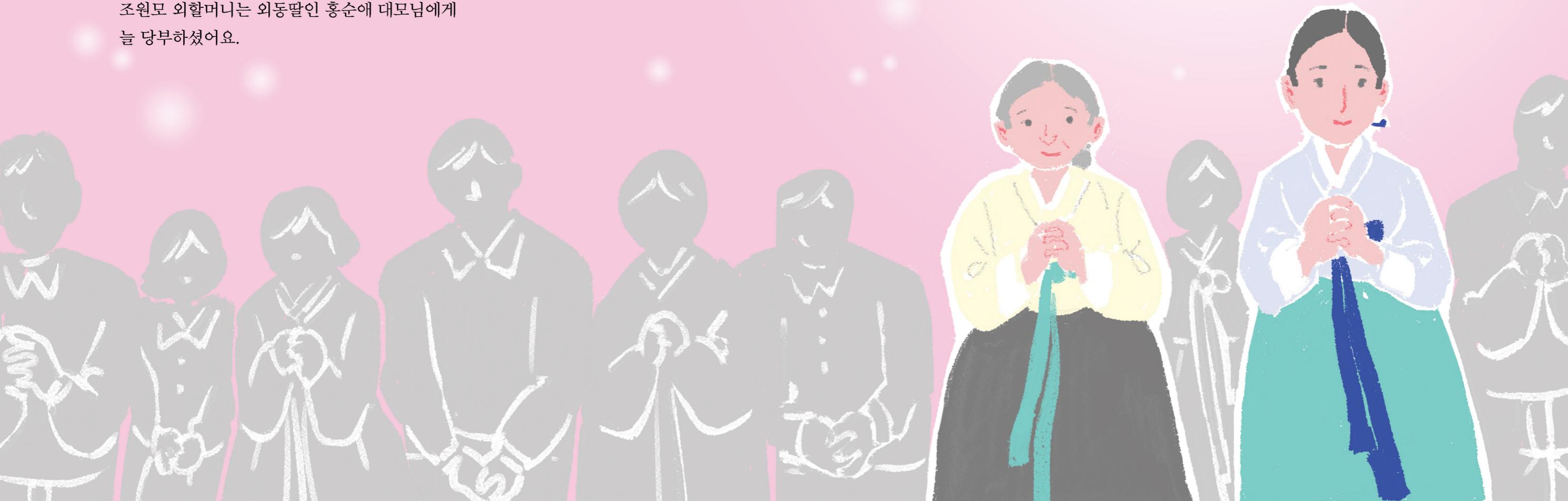
“나라를 위하고자 한  
네 마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훗날 너희 가문 자손 중에  
하나님의 딸을 보내 주겠다.”

그 뒤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외동딸인 조원모 외할머니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조한준 할아버지 이야기를 언제나 잊지 않으셨어요.

“순애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딸을 보내  
주신다고 하셨다.  
그날을 위해 언제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라.”

조원모 외할머니는 외동딸인 홍순애 대모님에게  
늘 당부하셨어요.

홍순애 대모님은 어머니와 함께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며 열심히 정성을 들이셨어요.



홍순애 대모님이 결혼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애야! 네가 아들을 낳으면 우주의 왕이 될 것이고,

딸을 낳으면 우주의 여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하신 딸을 홍순애 대모님에게 보내 주신 거예요.



“여보, 내가 지난밤에 신기한 꿈을 꾸었소.”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아주 울창하고 푸른 소나무 숲이 있는데,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면서 두 마리 학이 사이좋게 어울려 노는 게 아니겠소?”

“어머! 그래요?”



“곧 태어날 우리 아기 이름을 학자(鶴子)라고 지읍시다.”

홍순애 대모님은 불룩하게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